

## 당송사(唐宋詞) 유파(流派) 형성의 알고리즘

발표: 홍병혜(한국외대)

토론: 윤혜지(한국외대)

## 당송사(唐宋詞) 유파(流派) 형성의 알고리즘

홍병혜(한국외대)

본고는 '당송사 유파 형성과 그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펴보아야만 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숙고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단서를 탐색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오랜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당송사의 유파를 언급할 때, 사가(詞家)들은 습관적으로 완약파(婉約派)와 호방파(豪放派)를 거론한다. 사사(詞史)에서 최초로 음유미(陰柔美)와 양강미(陽剛美)라는 2가지 유형의 사(詞)를 각각 완약(婉約)과 호방(豪放)이라는 2개의 사체(詞體)로 구분하여 명명한 이는 명대(明代)의 장연(張綏)이다.<sup>118)</sup> 그러나 장연이 언급한 완약과 호방이라는 사체는 사실상 하나의 풍격개념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장연이 제기한 이 견해의 핵심은 그가 풍격개념을 가지고 단순히 사체를 대별한 것일 뿐이며, 사풍(詞風)은 사인(詞人)의 재능과 성정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사파(詞派)를 무리하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후인들이 완약과 호방을 유파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체와 사파를 혼동하였고, 장연의 주장이 사파를 의미한다고 왜곡하여 수용하였다.<sup>119)</sup> 이에 사사의 전체 작가들을 억지로 완약파와 호방파로 구분함으로써 2개의 유파를 절대적인 대립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심지어 완약사는 경솔하고 나약하여 영양이 부족하고 호방사는 건강하고 거국적이라는 등의 편견이 발생하게 되었고, 마침내 양자에 선악의 개념까지 이입시켜 평가하게 되면서 상호 경쟁과 갈등 및 배척의 양상을 조성하였다.

그렇다면 당송사의 유파 형성에 대해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주목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의 폐단을 제거하고 착오를 수정해야만 한다.

### 1. '풍격개념인 완약과 호방' 및 '완약과 호방이 유파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사문학 형식을 언급할 때 '완약사(婉約詞)와 호방사(豪放詞)' 내지 '완약파와 호방파' 등의 언급은 대단히 익숙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완약과 호방은 사체가 아닌, 사풍 또는 표현방식과 관련된 용어이다.

완약은 '완곡하고 함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학비평이나 문학표현에 인용되면, 은근·유연·함축·온화 등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완약을 음유라는 용어의 일부로 취급해 유약한 사풍을 개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커다란 오류이다. 음유에 포함된 단어나 표현이 모두 완곡하고 함축적인 것은 아니다.

118) 사체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약이고, 하나는 호방이다. 완약은 그 가사의 곡이 온화해야만 하고, 호방은 그 기상이 광활해야만 한다. 그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다. 예를 들어 진소유가 짓는다면 다분히 완약하고, 소자첨이 짓는다면 다분히 호방하다. 대개 사체는 완약을 정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동파는 소유를 일컬어 '지금 사의 고수'라고 칭하였고, 후산은 동파를 "교방에서 천등을 부르는 술사가 춤을 추는 것 같은데, 비록 세상에서 뛰어난 재주이기는 하지만 본색은 아니다."라고 평하였다.(詞體大略有二，一體婉約，一體豪放。婉約者欲其詞調蘊藉，豪放者欲其氣象恢宏。然亦存乎其人。如秦少游之作，多是婉約，蘇子瞻之作，多是豪放。大約詞體以婉約爲正。故東坡稱少游爲“今之詞手”，后山評東坡“如教坊雷大使舞，雖極天下之工，要非本色。”)

119) 청대초기의 왕사정(王士禎)은 『화초몽습(花草蒙拾)』에서 “장남호가 사파를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완약이고 하나는 호방이다. 나는 완약은 이청조를 중주로 삼아야하고 호방은 신기질을 으뜸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張南湖論詞派有二，一曰婉約，一曰豪放。僕謂婉約以易安爲宗，豪放惟幼安稱首。)”라고 하며 사체를 사파로 혼동한 채 더욱 이분법의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호방 역시 ‘광적으로 분방하여 신중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호방은 양강의 특징을 가진 풍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웅혼(雄渾)·고고(高古)·경건(勁健)·비개(悲慨)·광달(曠達) 등을 포함하는 양강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문학작품을 포괄해 거론할 수 없다.

결국 모든 문학작품의 표현방식을 크게 양분하자면, 음유와 양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음유 안에 완약이 양강 안에 호방이 포함된다.

유영(柳永) 사에 대한 정보를 예로 들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영 사의 주제: 생활의 군상, 남녀의 애정, 삶의 회한 등

유영 사의 제재: 변화한 도시, 나그네의 우수, 기녀의 생활, 기녀와의 애정 등

유영 사의 형식: 만사(慢詞) 위주

유영 사의 특징: 민간사의 세속성 계승, 화간사인 중 위장(韋莊)의 서정성을 수용

유영 사의 풍격: 양강과 음유를 혼용한 완약풍과 호방풍

즉, 완약과 호방은 각각 표현양식의 하나이며, 일정한 표현양식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이 각각 그러한 성향과 풍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영의 사 역시 오로지 완약풍으로 일관된 것은 아니며 제재에 따라 출입을 보이고 있으니, 유영에게는 완약사와 호방사가 공존한다.

결국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 완약사(완약풍격의 사)와 호방사(호방풍격의 사)라는 표현은 가능하나 완약파(완약사풍으로 창작한 유파)와 호방파(호방사풍으로 창작한 유파)라는 표현은 불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약사와 호방사 등의 이분법적인 개념은 단순히 풍격을 기준으로 사작을 변별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유파를 구분하고 이를 표현할 시에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유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 2. 유파의 정의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문학유파란 ‘특정시기에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며 유사한 사상적인 경향을 가지고 유사한 예술성을 추구하여 유사한 창작풍격을 구현함으로써,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작가집단’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출현한 문학유파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다른 경우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일정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상적 경향 및 예술적 견해와 취향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일정한 단체조직의 형식과 명칭을 가지며, 더 나아가 공동의 선언을 발표하는데 일정한 문학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또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창작을 실천한다. 물론 단체의 성격을 지닌 그 문학조직이 반드시 문학유파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문학조직이 분명한 이론적 주장을 제시하고, 게다가 창작에 있어서도 분명한 특색을 지닌 작가와 작품들을 배출한다면, 그 문학단체 조직은 문학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끼친 후에 점차 문학유파를 형성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상황은 동일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상적 경향 및 예술적 견해와 심미적 추구가 서로 근접한 작가들이 서로 비슷한 풍격의 창작을 실천함으로써, 점차 하나의 창작유형이 만들어져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파의 작가들은 결코 어떤 공동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어떤 공동의 강령내지 조직적인 칭호를 표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어떤 대표작가 일인 혹은 여러 대표작가의 창작과 이론을 자기창작의 규범으로 삼는데, 전전하며 전파되다가 점점 분명한 특색을 갖추게 되고, 이에 어느 한 시기를 일관하는 문학유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성과는 이후의 작가 또는 평론가들이 그 창작과 이론을 총합하고 귀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일정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 유파의 특징을 개괄하고 문학사의 일부로 기록된다.

위와 같은 현대문예학에서 정의하는 유파이론을 기준으로 이를 당송사사에 대입해 본다면, 사문학이 출발한 후 북송말기 이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에는 조직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고 창작원칙을 제창했던 유파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송사의 유파를 구분할 것인가?

이상에서 문학유파의 유형이 ‘우선기치(또는 조직), 이후창작’과 ‘우선창작, 이후기치(또는 조직)’의 형태임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다. ‘우선기치(또는 조직), 이후창작’의 형태는 동시성·체계성을 구비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창화나 교류 등의 현실적 활동을 일상화한 유형이다. ‘우선창작, 이후기치(또는 조직)’의 형태는 비동시성·비체계성으로 공동체가 구성되지 않아 창화나 교류의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대에는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다가 후대에 그 맥락을 관찰하고 간파하여 유파로 인정한 유형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역대로 당송사의 유파에 대한 몇 가지의 대표적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3파설

- (1) ①소식·신기질 ②진관·유영 ③강기·장염
- (2) ①구양수·안수 ②진관·황정건·주방언·유영·강기·사달조·이청조 ③소식·신기질
- (3) ①강기·장염 ②소식·신기질 ③진관·유영
- (4) ①화간사 ②유영 ③소식·신기질

##### 2) 4파설

- (1) ①안수·구양수 ②진관·주방언·하주·조보지·유영 ③강기·장염 ④신기질·유극장
- (2) ①주방언 ② 신기질 ③왕기손 ④오문영
- (3) ①이백·강기 ②주방언·장염 ③온정균·오문영 ④주밀·왕기손

##### 3) 8파설: ①유영 ②소식 ③진관·이청조 ④장선·하주 ⑤주방언 ⑥신기질 ⑦강기 ⑧오문영

특히 14체설을 토대로 8파설을 주장한 진정작(陳廷焯)의 견해는 근대에까지 완악과 호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폐단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사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백우재사화(白雨齋詞話)』 8권에 수록된 이에 대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송의 명가들은 유파는 다르나 본원은 하나이다. 그것을 파별로 논하자면, 대략 온비경(온정균)이 한 체인데, 황보자기(황보송)와 남당의 이주(이경과 이욱)가 그를 따랐다. 위단기(위장)가 한 체이고, 우송경(우교)이 그를 따랐다. 풍장중(풍연사)이 한 체인데, 당오대시기 여러 사인 및 북송의 안수·구양수·안기도 등이 그를 따랐다. 장자야(장선)가 한 체이다. 진회해(진관)가 한 체이고, 유영의 사 중 뛰어난 것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소동파(소식)가 한 체이다. 하방회(하주)가 한 체인데, 모택민과 조구자(조보지)의 뛰어난 것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주방언이 한 체이고, 죽옥(오문영)과 초창(주밀)이 그를 따랐다. 신가현(신기질)이 한 체이다. 강백석(강기)이 한 체이다. 사매계(사달조)가 한 체이다. 오몽창(오문영)이 한 체이다. 왕벽산(왕기손)이 한 체인데, 황공도와 진서록(진운평)이 그를 따랐다. 장옥전(장염)이 한 체이다. 그 중 온정균·위장·풍연사·진관·주방언·사달조·왕기손 7인은 길은 다르지만 하나로 귀결된다. 나머지도 각기 하나의 기치를 올렸는데, 모두 그 바를 잃지 않았다. 소식과 강기는 특히 출중하다.(唐宋名家, 流派不同, 本源則一. 論其派別, 大約溫飛卿爲一體, 皇甫子奇、南唐李主附之. 韋端己爲一體, 牛松卿附之. 馮正中爲一體, 唐五代諸詞人以暨北宋晏、歐、小山等附之. 張子野爲一體. 秦淮海

爲一體，柳詞高者附之。蘇東坡爲一體。賀方回爲一體，毛澤民、晁具茨高者附之。周美成爲一體，竹屋、草窗附之。辛稼軒爲一體。姜白石爲一體。史梅溪爲一體。吳夢窗爲一體。王碧山爲一體，黃公度、陳西麓附之。張玉田爲一體。其間惟飛卿、端己、正中、淮海、美成、梅溪、碧山七家，殊途同歸。餘則各樹一幟，而皆不失其正。東坡、白石，尤爲矯矯。）

위에서 진정작이 ‘체’라고 한 것은 곧 유파와 파별을 의미한다. 그는 먼저 당송사의 명가들을 14개의 유파로 나누고, 문미에서는 온정균·위장·풍연사·진관·주방언·사달조·왕기손 7인이 길은 달랐지만 한 곳으로 귀결된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진정작의 언급은 온정균·위장 등의 각기 다른 7인을 하나의 유파로 합한 것으로 결국 그는 사실상 당송사를 8개의 유파로 구분한 것이다.

진정작 이후에 또 다른 8개의 유파설을 창설한 이는 근대의 사가인 첨안태(詹安泰)이다. 그는『송사풍격유파약담(宋詞風格流派略談)』에서 호방과 완약으로 단순화된 양분법을 면하기 어려움에 대해 비평한 후, 정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첨안태는 송사의 예술풍격은 진솔명랑(眞率明朗: 유영 등)·고광청웅(高曠淸雄: 소식 등)·완약청신(婉約淸新: 진관과 이청조 등)·기염준수(奇艷俊秀: 장선과 하주 등)·전려정공(典麗精工: 주방언 등)·호매분방(豪邁奔放: 신기질 등)·소아청경(騷雅淸勁: 강기 등)·밀려험삽(密麗險澁: 오문영 등) 등의 유파로 귀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각 대표작가와 부속작가가 있는데, 이외에도 북송전기에는 이전 것을 계승하여 새로운 것을 개척한 풍격과 유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송사의 8대 풍격을 제창한 것 외에도 북송전기에 이전의 것을 이어 미래의 전도를 개척한 또 다른 풍격유파가 있었음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첨안태의 이와 같은 구분은 북송중기부터 남송말기까지 사단에 존재한 유파들의 실태에 근거하였고, 주요작가의 독창적인 풍격과 영향력을 가진 유형풍격의 전승과 변화에 착안하였다. 비록 이와 관련한 서술에 전면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성을 제시하고 있어, 근대의 사가들이 주창한 당송사유파설 중 상당한 계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현재의 사가들이 당송사유파설을 거론할 때, 이를 토대로 유관작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정리된 탐색내용을 보충하는 것 역시, 당송사의 유파를 안정적으로 고찰하는 양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송사의 유파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당송사의 실체(실제창작)로부터 일일이 파악할 것
- 2) 유파를 언급하며 체성이나 풍격과 혼용한 사가들의 평가를 변별할 것
- 3) 유파의 의미(사상노선과 심미적 추구 및 풍격의 경향이 서로 근접하는 1인 1인이 집합한 작가집단)를 정확히 이해할 것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한다면, 당송사의 유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거론한 내용들에 준거하여 가급적 당송사를 개체가 아닌 군체의 형태로 관찰한다면, 당송사유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장기간 보편성과 경향성을 구비한 사단의 기질이나 심미경향을 가리키는 유형  
ex. 화간유파 등
- 2) 동시기에 취향과 풍격을 공유하며 교유·창화 등의 사교를 통해 사인집단을 형성한 유형
- 3) 동시기에는 교유나 창화 등이 진행되지 않아 제재·표현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특정의 제재와 체식·풍격 등에 경도되어 있는 현상이 후대의 사가들에게 포착되어 일정의 유파로 인정된 유형  
ex. 유영사파, 골계사파 등

이는 정비되지 못한 채 뒤섞여 나열되어 있는 당송사유파의 상황을 1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대강이다.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명백하게 추출할 수 있는 당송사유파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1) 화간사파(만당·오대 ~ 북송)
- 2) 유명사파(북송)
- 3) 주방언사파(북송)
- 4) 신기질사파(남송)
- 5) 강기사파(남송)

이상의 유파분류는 본고에서 시험적으로 제안하는 당송사의 5대유파로 상당히 개괄적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사작을 대입하며 세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사문학의 유파와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얽히고설킨 복잡한 국면을 보인다. 때문에 개인의 일회성이나 간헐성 연구가 아닌, 많은 사가들이 인식을 같이하며 이에 동참해야만 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공력을 거쳐 이를 수정해나가는 지난한 과정의 반복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학적 합의와 공감대는 사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 참고문헌

- 李一氓(1958), 花間集校, 人民文學出版社  
張璋(1986), 全唐五代詞, 上海古籍出版社  
唐圭璋(1980), 全宋詞, 中華書局  
唐圭璋(1996), 詞話叢編, 中華書局  
唐圭璋(1981), 唐宋詞簡釋, 上海古籍出版社  
丁福保(1983),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徐鉉(1981), 詞苑叢談, 上海古籍出版社  
楊海明(1987), 唐宋詞史, 江蘇古籍出版社  
薛礪若(1949), 宋詞通論, 開明書店  
劉永濟(1981), 詞論, 上海古籍出版社  
楊海明(1987), 唐宋詞風格論,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楊海明(1988), 唐宋詞論稿, 浙江古籍出版社  
吳熊和(1985), 唐宋詞通論, 浙江古籍出版社  
謝桃坊(1992), 宋詞概論, 四川文藝出版社  
劉揚忠(2007), 唐宋詞流派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발표자: 홍병혜(한국외국어대학교)

전화번호: 010-2717-0758

전자우편: brightfavors@hanmail.net